

<제 58 호>

2022 년 5 월 31 일

(홈페이지: <https://kascn.org/>)

<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뉴욕주 의무교육 법안통과 촉구 집회 열려 >



아시안 이민자들의 미국 이민 역사와 미국 사회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의무 교육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21 일(토) 오전 10 시에 그레잇넥(Greatneck)에 위치한 파이어파이터스(Firefighters)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참여센터(KACE)와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는 집회에 참여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뉴욕 이보교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우리도 당연한 미국인인데,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도 미국 역사라는 것을 굳이 설명해야만 한다는 현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원태 목사는 또한 “당연한 사실을 공립학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법으로 “의무화”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존재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은 우리가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2/5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시민정신의 발로이며, 우리 자녀들이 더 당당하게 역사의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혐오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자매와 형제임을 깨닫는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 등 2 개 주에서 통과되었고, 뉴욕은 현재 주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집회는 애나 카플란(Anna M. Kaplan) 뉴욕주 상원의원(민주, North Hills)과 지나 실리티(Gina Sillitti) 주하원의원(민주, Port Washington)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S6359A.A7260A)을 발의한 뉴욕시 교육위원회 의장, 존 리우(John Liu) 의원도 참석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참여센터(KACE)와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운동가 등이 함께 했습니다.

카플란 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이며, 모든 학생들이 이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극단주의자들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다양성은 나쁜 것이며, 학교에서 다양성이 강조되거나 가르쳐져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를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집회를 여는 이유는 아시안 이민자들의 공헌과 그들의 역사에 관해 우리 아이들이 꼭 배울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풍성한 역사에 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증오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실리티 의원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장벽과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시안 이민자들을 향한 혐오와 인종차별을 철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가장 빠른 결과를 도출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리우 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안 이민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수세대 동안 아시안 이민자들을 괴롭게 했던 ‘모범적 소수(Model Minority)’나 영원한 이방인(Perpetual Foreigner Syndrome)’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뉴욕우리교회(조원태 목사)에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법안 통과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장면

특히 이날 집회에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학생 운동가이자 해릭스 고등학교(Herricks High School) 학생인 Iris 의 연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회 운동 단체인 Acknowledge Our History 를 이끌고 있는 Iris 는 평소 묵묵한 학생이었던 자신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깨달은 후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Iris 의 연설 전문입니다.

<학생 운동가 Iris 의 연설 전문>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랠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저는 “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언제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저처럼 “말이 별로 없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 학교 도서관에 머물며 책읽기를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하거나, 프로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4/5

농구 경기 결과에 관해 떠들기 보다는, 노트에 그림을 그리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평소에 말하기보다 늘 듣는 편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나는 어떠한 일에도 앞에 나서 본적이 없습니다.

“조용한 학생”으로서의 나의 침묵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최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내 권리를 침해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용한 학생”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 이민 공동체는 우리의 근원적인 권리가 끊임없이 짓밟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교실에서 침묵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미국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멈추게 했고, 아시안 이민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혐오범죄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동네를 걸으며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동네 수퍼마켓에 가면서도 광포한 폭력, 증오, 잔인한 공격, 주먹질 등의 위협을 느끼고, 병원 신세 질까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야만 합니까? 이곳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사회에 대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공헌과 우리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 그릇된 편견과 싸울 때입니다. (우리의 교실에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미국 역사에 관한 통전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런 준비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시안 이민자들과, 그들의 고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학교 정규과목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시안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지워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과거와 현재의 비극이 미래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미국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도시와 마을의 거리에 전염병을 불러오는 “황화(黃禍, the “Yellow Peril”)"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의 한 토대(fabric)입니다. 우리는 정치 활동가, 의사, 요리사, 교사, 판사, 공장 노동자, 법률가, 엄마, 아빠 그리고 학생입니다. 우리는 폭력에 상하거나 죽음 당할 걱정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와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5/5

미국 사회의 중요한 한 일원으로서,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하고, 피흘리고 있으며,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Iris 학생이 연설하는 모습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

뉴욕주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의무 교육 법안 통과를 위해 아래 사이트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http://goaction.net/aapihistorybill>.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www.kascn.org